대형 이벤트 벌여놓고 지원은 소극적 '용두사미'

문화수도 발목잡는 광주시 문화행정 ❸ 성과주의 전시행정

기반시설 확충·시민 교육 관련 예산 편성 등 내실있는 문화행정 펼쳐야

광주시의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용두사미' 위기에 놓였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광주시, 일본 요코하마(橫濱), 중국 취안저우시(泉州市)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국제 도시간 문화교류행사다. 시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내년 3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오픈행사를 시작으로, 3~9월까지 15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내년 행사를 위해 치르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원과 행사비 4억원 가량에 그치고 있다. 현재 10억여원을 문화부에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 행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를 겨냥해 올해 치러진 '2013 광주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행사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잡혔으나, 빠듯한 예산 때문에 작가 섭외는 물론 행사진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해외 참여작가들에게 작품 제작비를 주지 못했다"며 "작가들에게 재능기부를 요청하거나 조명장비의 등급을 낮춰 임대하는 등 행사진행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대형 문화이벤트나 행사를 잇따라 추진하면서도 확고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글로벌 디자인 도시 광주' '문화창조 도시' 등 시정비전을 앞세워 치르는 각종 행사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디자인코리아2013,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기념 k-pop콘서트&지역문화콘텐츠 체험전, 2013 세계고분자 포럼,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5 세계디자인총회 등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행사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폐막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정체성 결여라는 지적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행사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문화계에서는 이번 행사를 성격이 전혀 다른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가 공동개최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두 기관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예견됐던 '비엔날레냐, 페어냐'하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행사 폐막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대회에 오점으로 남았다. 산업화와 문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바람에 디자인비엔날레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광주시가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사를 두 기관에 맡기는 바람에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시의 궁색한 행사, 조직지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출범한 민·관협의체인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포럼)은 현재 운영예산이 없어 활력을 잃은 상태다.

광주시가 포럼 운영예산으로 7000만원만을 편성, 이미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이 때문에 포럼측은 위원들에게 지급할 회의참석 수당이 부족해 임시방편을 마련해 총회를 열고 있다. 공식적으로 총회를 열게되면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오찬간담회로 대체한 것. 다행히 광주시가 내년 포럼 운영예산으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올말까지는 약식 간담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할 지경이다.

류재한 아시아문화학회장은 "광주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일회성 스포츠 대회에 치중하는 데다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도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며 "광주가 문화도시인 만큼 문화기반시설 확충, 시민문화교육 관련 예산 편성 등 내실있는 문화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마음으로 하는 기도…손으로 표현된 마음

김은영의 '그림 생각'

(51) 기도

로뎅 작 '성당' (1908년 작)

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몇 주 전부터 전국의 유명 사찰 등지에서 자녀들의 고득점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성심을 다하는 기도가 어찌나 절실해 보이던지 그 마음 하늘에 닿을 것 같다. 나 역시도 곧 있으면 대학 입시생이 될 딸을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인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간절한 마음은 손으로 표현된다. 로댕(1840~1917)의 '성당'(1908년 작)은 기도하는 두 손을 표현한 청동작품이다. 로댕은 고딕 성당양식에 애정을 갖고 있었고 기도하는 두 손에서 고딕의 기원을 찾았기에 작품명을 '성당'으로 하였다고 한다. 고딕은 중세미술의 양식으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미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하늘 높이 치솟은 대성당의 첨탑을 통해 인간은 좀 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 것이다. 천 년 전에도 그랬듯이, 천 년 후인 오늘날에도 신에게 의지하는 인간의 약한 마음은 '기도'하는 손에서 읽을 수 있다.

연전, 파리의 로댕미술관에서 로댕의 조각 작품들을 만나 숨이 멎는 듯한 감동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아카데믹한 관습에서 해방된 로댕은 조각의 자유로움과 관능미, 격렬함으로 당대의 대중을 놀라게 했고 언제나 '스캔들'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다. 공인된 명성 속에 지겹도록 복제되어 너무 눈에 익은 로댕의 작품들을 선입견 없이 감상하려면 오히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역설적이다.

로댕은 건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던 조각에 생명의 숨결과 감정을 불어넣은 근대조각의 선구자였고, 특히 손을 전체의 부분으로서가 아닌 독자적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조각가이기도 하다. 로댕의 그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오늘 자식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았을 수험생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본다.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한국문화경제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

8·9일 전남대학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손원익)는 '2013 추계 학술대회'를 8일~9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용지관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으로, 소병희 국민대 교수가 '창조경제와 창조문화'를, 김 성 광주문화재단사무처장이 '문화전당과 지역연계를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곽수일 한국문화경제학회 창립회장을 좌장으로 김상호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용환 전문화부 차관,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서영진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사 등이 문화전당과 창조경제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9일에는 모두 4개 부문으로 나뉘어 문화경제·경영·문화산업, 문화행정·정책, 문화공연·예술 등 주제를 놓고 최병서 동덕여대 교수, 구문모 한라대 교수 등이 의견을 나눈다.

손원익 한국문화경제학장은 "학계와 문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제4차 시국회의'에서 강운태 시장과 조호권 시의장,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들이 교학사 등 일부 교과서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들에 손배 청구"

4차 시국회의, 역사왜곡·폄훼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 건의키로

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제4차 시국회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역사왜곡·폄훼 세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시의회 의장, 지역원로,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폄훼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6월 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또 5·18 단체로부터 고소·고발된 일베 회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교학사의 교과서가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검정취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日日만평

- 김종두

'국면전환' 대성공이군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7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타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꾀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타리):051)818-8800 서면2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타리):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타리):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타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심원로타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타리):064)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